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 부르봉 왕국의 페르디난도(Ferdinando) 4세에게는 마리아 카롤리나(Maria Carolina)라는 아내가 있었다. 카롤리나는 오스트리아 공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사이에 태어난 16남매 중 13번째 아이였다. 16남매 중에선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동생 마리 앙투아네트와 가장 절친했다.

강한 품성을 가진 카롤리나는 결혼 후 정치에 무관심했던 페르디난도 왕을 제치고 나폴리 왕국의 실권을 장악했다. 앙투아네트가 대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프랑스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카롤리나는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등 유럽의 강력한 왕국들과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 세력을 견제했다. 하지만 대세는 프랑스로 기울고 그는 시칠리아로 몸을 피했다.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돈나푸가타는 이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간 카롤리나 왕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와인이다. 돈나푸가타가 소유한 포도밭 '콘테사 엔텔리나(Contessa Entellina)'는 카롤리나가 시칠리아에서 은신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1983년 이곳을 사들인 달로 가문은 와이너리 이름으로 '도망간 여인'을 뜻하는 돈나푸가타를 붙였다. 그래서 와인 레이블엔 비운의 여인 카롤리나와 그가 살았던 궁전 이미지로 가득하다.

돈나푸가타 와인 중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앙겔리(Anghele)의 레이블엔 태양과 달, 선인장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금발의 여인 모습을 담았다. 한 여름 뜨거운 시칠리아의 이미지와 함께 도망가는 카롤리나 왕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돈나푸가타의 화이트 와인 안실리아의 레이블엔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카롤리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난 7월 말 한국을 찾은 돈나푸가타의 파비오 제노베세(Fabio Genovese) 수출 담당 매니저는 "와이너리 오너가 카롤리나 왕비와 얽힌 이야기를 와인에 접목시켰다"며 "와인 맛과 별도로 역사적인 스토리와 감성적인 와인 레이블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와인 레이블의 이미지는 각각의 와인 맛과 무관치 않다. 돈나푸가타의 최고급 와인인 밀레 에 우나 노테는 '천일야화(Thousand and One Nights)'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레이블에는 별과 달이 떠 있는 밤하늘 아래 카롤리나 왕비가 은신한 듯한 궁전이 그려져 있다. 이는 와이너리 여주인인 가브리엘라가 이 와인을 처음 마신 후 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를 바로 떠올렸기 때문에 탄생했다. 90% 이상을 시칠리아 토착 품종인 네로 다볼라로 만드는 밀레 에 우나 노테는 이탈리아가 지난 30년 동안 만든 '최고의 10대 와인' 대열에 꼽힌 명품이다.

와인 레이블 못지않게 이름도 낭만적이다. 돈나푸가타의 와인 이름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국민작가 주세페 토마시 드 람페두사의 소설 <레오

파드>(Leopard)에서 빌려왔다. 1963년 영화로 만들어진 <레오파드>는 미국의 버트 랭커스터, 프랑스의 알랭 들롱 그리고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함께 출연해 호평을 받은 작품. 네로 다볼라와 카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해 만든 탄크레디는 레오파드의 남자 주인공 이름, 앙겔리와 세다라는 안젤리카 세다라라는 여자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 시칠리아는 영화 <대부>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와인 생산지로도 남다른 명성을 자랑한다. 기원전 4세기부터 포도 재배를 시작했고, 건조한 바람으로 훌륭한 풍미를 가진 포도가 만들어진다. 돈나푸가타의 디저트 와인 벤 리에는 아라비아 말로 '바람의 아들'이라는 뜻. 순수하게 바람에 의해서만 건조된 포도로 만들어진다.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과일 향으로 국내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F**

돈나푸가타(Donnafugata)

도망간 왕비의 눈물을 모아서...

글 손용석 기자 · 사진 나라식품 제공

